자율적 행동의 리더십

김 보 건 소령
육군7사단 연승연대

간부들은 임관 이전부터 솔선수범과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과거 기계화학교 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생들에게 리더십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간부로서 어떻게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지 교육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맹목적인 리더십 교육은 한계를 보인다. 간부 역시 지시에 의해서, 그저 부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솔선수범이 과연 부하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있다.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감'이라는 뜻이다. 나 자신을 누가 보든 안 보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신독은 우리 간부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다. 우리 용사들이 어디서나 간부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간부를 '어항 속의 물고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어항 속 물고기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하들에게 감동을 주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9월 말, 군단 전투력측정 간 4.2인치 박격포 운용 평가를 준비하면서 겪은 일이다.

평가를 받는 대상은 기행 병과 간부 3명과 나를 포함한 전투 병과 간부 2명이었다. 5명 모두 4.2인치 박격포 운용을 평가받는 것은 처음이었다. 먼저 전투지원중대 간부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시간을 단축하고 오차를 줄여 방렬까지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부대가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평가일 이틀 전부터는 평가 대상인 5명이 자체 연습을 했다. 시간을 초 단위로 재가며 조금이라도 빨리 방향틀을 정치하려고 했고, 나머지 4명의 간부도 열심히 방렬을 준비했다.

한 번 연습을 시작하면 4시간씩 이어졌고, 체력단련 시간까지도 우리의 연습은 끝날 줄을 몰랐다. 용사들은 체력단련 시간에 박격포 평가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간부들이 체력단련 안 하고 뭐하는 거지?'라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연습이 반복되자, 이내 용사들도 우리가 평가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한 용사가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간부들이 스스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용사의 말에 난 큰 감동을 받았다. 나아가 간부의 행동이 용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부하들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다. 맹목적인 보여주기식 행동은 진정한 리더십을 이끌어 낼 수 없고, 그들에게 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간부들이 진심을 다해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사들이 스스로 느끼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속도는 느리겠지만 분명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 강군 건설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징비정신으로 이뤄낸 35년

염 부 근 준위
해군7기동전단 서애류성룡함

서애 류성룡의 '징비(懲毖)' 정신은 '지난 잘못을 경계하여 후환을 대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해군의 일원으로 보낸 지난 35년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징비의 연속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많이 방황했다.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소년가정이 되어야 했고, 살기 위해 주경야독의 삶을 선택했다. 21세의 어린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해군 부사관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하사 계급장을 달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딸린 식구는 무려 10명이었다. 준비돼 있지 않은 어린 가장의 어깨는 무거웠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그런 나를 이해해준 것은 '해군'이었다. 내 사정을 알게 된 전단장님께서 자택을 방문해 격려해 주셨고, 같은 함정 전우들은 십시일반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의 20대는 내가 해군이었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마침내 내 삶의 안정기를 맞이했다. 그 안정은 해군에 대한 감사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나왔다. 해군에서 근무하며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자동차과에서 공부하면서 추기부사관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더불어 자동차기능사부터 자동차기사까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20여 개 자격증을 취득했고 배움은 계속되고 있다. 군 생활 속에서 연합훈련, 해외파병, 순항훈련 등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다. 징비 정신으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 살다 보니 부사관 최고의 명예라 할 수 있는 준사관의 영예도 안게 됐다.

나는 지금 3년째 서애류성룡함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8년 국제관함식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떨쳤다. 관함식 사전 행사로 진행했던 부대공개 행사에서 한 아이가 해군 제복을 보고 "해군이 되고 싶다"며 내게 필승을 외치던 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징비 정신으로 환태평양훈련(RIMPAC)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대한민국 최고의 함정이라 할 수 있는 서애류성룡함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고, 2020년 11월 24일 오늘, 35년 군생활을 마치는 전역식을 가족과 장병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서애류성룡함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31살이 된 아들이 "해군 아버지를 둔 것이 자랑스럽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평소 말이 없는 아들의 칭찬을 듣고 보니 군 생활에 대해 더욱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해군과 징비 정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내 삶의 시작은 비록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끝은 창대했다. 해군이 있었기에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징비 정신을 통해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앞으로 남은 내 평생을 징비 정신으로 해군에 이바지하며 인생 2막을 항진해 나갈 것이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래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4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군인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으로 문의)로 제출
△**이메일 주소**: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947-3717, 일반) 02-2079-3717

드론, 나의 뜨거운 도전

안 재 현 하사
육군1기갑여단
전투근무지원대대

'도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나에게도 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지난 10월 열린 '군단 제1회 드론 챌린지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낸 일이다. 초임부사관인 나에게 이번 도전은 앞으로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에 큰 자양분이 될 것 같다.

드론은 자율항법장치에 의해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해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다. 내가 드론을 처음 접한 것은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입대 전 드론 조종 자격증과 조종면허를 취득했고, 입대 후에는 드론 정비사에 도전해 드론 정비 자격증까지 보유했다.

이번 군단 드론 챌린지 대회는 지금까지 갈

고닦은 드론 조종 능력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였다. 여러 가지 종목 중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정비하는 드론 축구가 나에게 딱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조종과 정비 자격증이 있기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군단 드론 축구 경기를 준비하면서 아직 군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또 마땅한 연습공간이 없어 창고 등을 찾아다녔고, 꾸준히 드론을 만지며 어떻게 회전하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하며 연습 시간을 늘려갔다. 낯선 경기 규칙과 팀플레이 조건 등을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연습했다.

그 결과 나는 이번 군단 드론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얻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마음과 도전정신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나에겐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 있다. 지금은 단순한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지만, 더 발전하고 노력해 전장을 지배하는 전투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궂은 날씨와 많은 제한사항을 극복하면서 드론을 조종하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조종하는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그날까지!